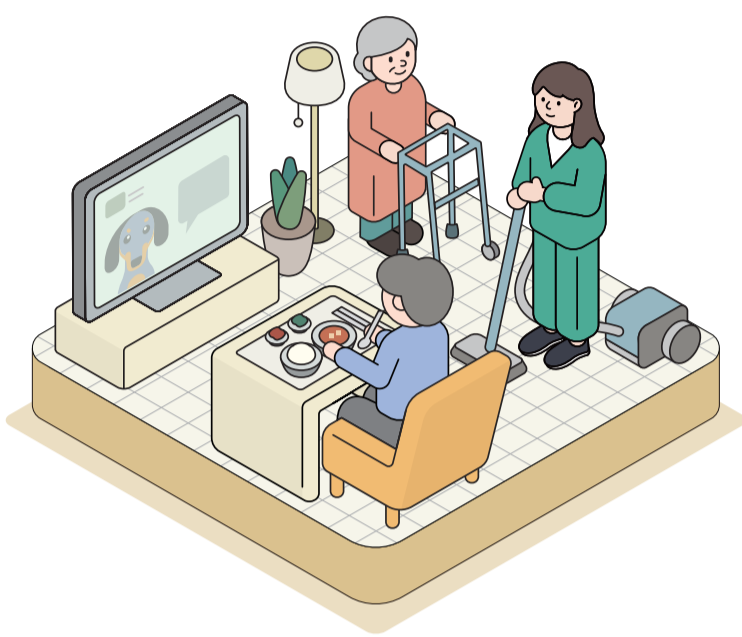


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

치매의 시작 전부터, 일상까지

치매가 있어도,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가가 함께합니다.

치매 예방부터 진단, 돌봄까지 환자가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과 현장에 맞게 지원합니다.



☑ 먼저, 스스로 점검해보세요.

- ❑ 최근에 들은 이야기나 약속을 기억하기 어려운 경우가 자주 있다.
- ❑ 평소 하던 일인데도 순서가 헛갈리거나 무엇을 하려 했는지 잊는 일이 늘었다.
- ❑ 말하고 싶은 단어가 바로 떠오르지 않아 대화가 끊기거나 설명이 길어지는 일이 잦아졌다.

<출처: 한국형 치매선별설문지(KDSQ-C)>



예

가까운 **치매안심센터**에서 상담과 검사, 필요한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


아니오

생활 속에서 스스로 점검하며 치매 예방을 위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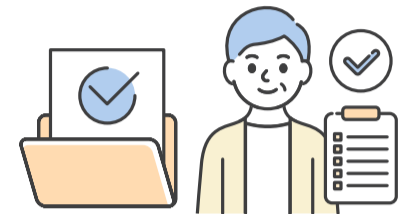
1	2	3	4	5	6	7
치매 전 단계	조기발견	치매 진단 이후	가족과 돌봄	일상의 안전	환자의 권리가 보장되도록	앞으로의 준비
경도인지장애 진단 시 치매안심센터에서 등록·관리	확~ 줄어든 치매검사 시간과 대기 시간	치매관리 주치의에게 동네에서 계속해서 치료!	치매환자 보호자의 돌봄전문성을 활용한 노인일자리 마련	고위험군 대상 운전능력 진단시스템 도입	치매안심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 도입	의료+요양+돌봄 시스템을 지역에서 받도록 연계

① 치매 전 단계 | 예방관리

· 경도인지장애¹⁾로 진단되면 치매안심센터²⁾에 등록해 **기억력과 인지 상태를 계속 확인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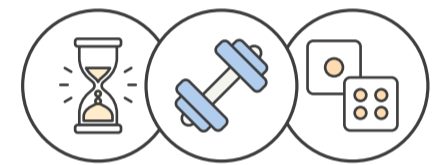


· 치매 위험요인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생활습관과 건강 관리 방법을 담은 **안내 자료를 제공**



· 기억력 저하 관리, 운동·취미 활동을 함께하는 **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**에 더 자주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횟수 등 확대

* 인지강화교실 확대 운영: 주 1회 → 주 3회
 문화로 치유³⁾: 미술, 음악 등 예술치유활동 프로그램 연계
 건강백세 운동교실⁴⁾: 운동 강습 프로그램 연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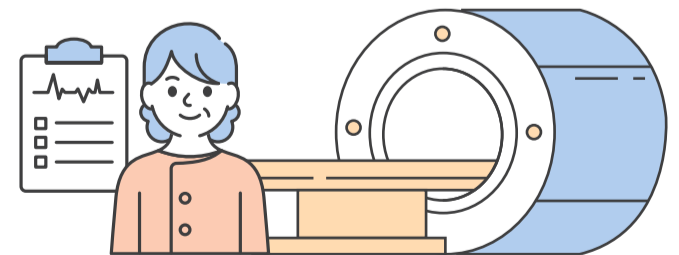
1) 경도인지장애: 또래에 비해 기억력 등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나, 일상생활 수행 능력은 크게 무리가 없는 상태로,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단계
 2) 치매안심센터: 치매 예방, 조기검사, 상담, 돌봄 연계 등을 제공하기 위해 전국(256개소)에 설치·운영되는 지역 치매 관리 거점 기관
 3) 문화로 치유: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는 경도인지장애진단자와 치매고위험군(65세 이상) 대상
 4) 건강백세 운동교실: 낙상 예방 운동 등 신체활동 증진을 위해 경로당, 복지관 등 지역사회 기관 제공(주 2~3회)

② 조기발견

· **치매안심센터**에서 간편히 진행할 수 있는 검사 도구를 도입해 검사 대기와 부담 **↓**



· CT·MRI 같은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**검사 비용 지원(현재 11만원)**을 늘려 부담 완화



· 돌봄서비스나 노인일자리를 이용하는 중에도 필요하면 **치매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** 연결



3 치매 진단 이후

- 치매환자가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치료·관리 받을 수 있도록 **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¹⁾** 대상 지역 확대*



* 2025년 42개 시·군·구 → 2026년 90개 시·군·구 → 2028년 전국

- 집에서 생활하는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치매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**재택의료센터²⁾** **의료진 대상 치매교육** 실시



- 치매의 원인과 중증도에 따라 **환자에게 적합한 진료**가 이루어지도록 **기준을 마련**



1)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: 치매관리에 전문성 있는 의사가 치매환자가 살던 곳에서 체계적·포괄적인 치료·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
 2) 재택의료센터: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의료진의 방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 서비스 기관

4 가족과 돌봄

- 치매 환자 보호자의 돌봄전문성을 활용한 **노인일자리** 마련



- **치매안심센터**를 통해 돌봄을 처음 해 보는 보호자에게 상담과 교육·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



- **치매안심센터 쉼터**와 **주·야간보호시설¹⁾**을 동시에 이용*할 수 있게 개선해 돌봄 공백을 해소
 *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'인지 지원 등급'을 받은 어르신 대상



1) 주·야간보호시설: 치매 환자가 낮이나 밤 동안 시설을 이용하며 돌봄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공되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시설

5 일상의 안전

· 치매 환자의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

고위험군 대상 운전능력진단시스템 도입 경찰청



· 치매에 영향을 주는 생활습관을 계량화한 **인지건강 실천지수**를 개편*해
치매안심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 배포



* 치매 관련 생활습관을 수치화해 인지건강 위험과 예방 실천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최근 연구결과 등 반영해 개편

· 치매가 있어도 동네에서 불편 없이 지낼 수 있도록

치매안심마을 우수사례* 전국 확산(2027년~) 등 **치매 친화적인 환경** 조성

* 치매안심마을 유형별 우수 사례

- ① **지역사회 안전망형**(치매환자 실종모의훈련 등): 지역 내 기관(경찰서, 소방서, 치매안심가맹점 등)과 연계·협력하여 실종예방을 위한 모의훈련, 지역주민 대상의 실종대응 교육 진행
- ② **환경개선형**: 지역 내 공공기관(전기안전공사, 가스안전공사 등)과 연계하여 치매환자 가정에 안전물품(가스타이머콕, 전기차단기, 안전손잡이 등) 설치 지원
- ③ **사회참여형**(초록기억카페 등): 지역 내 카페와 협력하여 조기 발병 치매환자에게 주 1~2회 카페 업무(주문, 서빙 등)를 제공하고, 활동 보상으로 지역마트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 체계를 구축하여 치매환자의 사회활동을 촉진

6 환자의 권리가 보장되도록

· 어르신이 치매여도 안심하고 믿을 수 있게 국가가 관리해주는

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¹⁾ 도입*



* **2026년** 시범사업 → **2028년** 본사업

※ 본인 또는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, 국민연금공단 이에 근거해 재산관리와 의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에 지출될 수 있도록 지원

· 법적·행정적 판단이 필요할 때 **공공후견인²⁾**을 통해
의사결정을 지원하는 **치매공공후견사업**의 지원인력 확대



* **2026년** 300명 → **2030년** 1900명

1)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: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 환자의 자산 관리와 관련된 어려움을 공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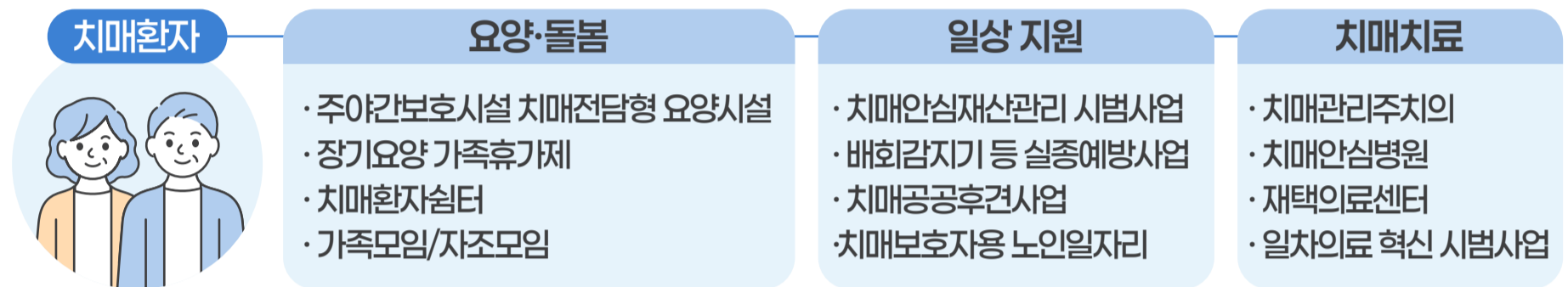
2) 공공후견인: 치매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람을 대신해 법적·행정적 결정을 지원하는 공적 후견 제도

7 앞으로의 준비

- 지역 여건에 맞게, 고령인구·의료자원 등을 고려해 **치매안심센터 지원체계를 유형화**하고 이에 따라 맞춤형 지원



- **치매관리전달체계**와 **통합돌봄지원체계¹⁾**와의 연계 강화



- **AI(인공지능) 등 첨단 기술을 활용**하는 치매 조기 진단, 예방치료 기술 연구 지원



- 통합체계 구축 등 **치매 관련 데이터²⁾**를 체계적으로 관리*해 근거에 기반한 정책 마련 질병관리청



- * - 치매 뇌조직 정보를 연구자 간 공유하는 통합체계 구축, 치매뇌은행 확대 (4개소 → 5개소)
- 치매안심센터에서 활용되는 치매 특화 인지중재 프로그램의 적합성 점검
- 전문가 검토를 거쳐 돌봄 부담·일상생활 변화 등 신규 조사항목을 추가한 치매 실태·역학조사 결과를 정책에 반영

1) 통합돌봄지원체계: 의료·요양·돌봄 서비스를 지역 안에서 연계 제공해 환자가 살던 곳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
 2) 치매 관련 데이터: 치매 예방·진단·치료·돌봄 과정에서 축적되는 정보를 말하며, 근거에 기반한 정책 수립과 연구에 활용

가까운 **치매안심센터**에서 **상담부터 검사, 돌봄 연계까지**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



우리 동네 치매안심센터 찾기

